

“가슴으로 믿고 행해 불교의 중심 됩시다”

목정배 명예교수, 암투병 중에도 강단서 열변

암투병 중에도 강단에선 한 원로교수의 열정이 불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노 교수의 하얗던 머리는 ‘신경내분비종양’이란 희귀암으로 모두 없어졌지만 눈빛과 목소리는 살아있었다. 주인공은 목정배(77) 동국대 명예교수. 목 교수는 2월 21일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주관하는 열린논단에 발제자로 강단에 다시 섰다. 재가불자들이 세상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세제불교를 주장했던 목 교수는 이날 재가불교운동의 방향을 주제로 열변을 토했다.

“스스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망설임이 없어야 합니다. 머리로 이 길이 내길인지 생각하기 전에 가슴으로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목 교수는 불교 공부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불교공부하는 사람들이 불교를 비평해서 논지를 세우라”고 말했다.

교리 등을 무조건 믿지 말고 어떤 것인지 스스로 이해해서 나름의 논지를 세우고 신생활을 전개하라는 것이었다.

목 교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바로 믿고 실천해야

한다”며 “재가불교인들이 세상에 진리가 구현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2월 17일 병원에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19일 정신이 들자마자 강연 자리를 쟁겼다.

목 교수는 “심력을 집중하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 할 수 있다”며 “병원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강단에 설 수 있는 것도 마음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이날 후진들에게 생계를 떠나 온전히 학문에 길에 매진 할 것을 당부했다. 목 교수는 “학문은 먼저 이 것이 내 문(文)인지 확신이 서야 한다”며 “문(門) 앞을 서성이고 있으니 이도저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목 교수는 스스로의 학문을 ‘잡(雜)’이라고 표현했다. 다양성 속에 발전이 있음을 강조한 말이다.

목 교수는 “불교란 때론 웃기게도, 슬프게도 말할 수 있고, 날카롭게 스스로를 비판할 수도 있어야 발전한다”며 “불교의 다양한 논지를 다루는 불교평론을 비롯한 학계의 목소리가 외부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조계종 등 종단과 불교계를 향해 서로 고인을 잊지 않았다. 목 교수는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설하셔서 원융과 합을 강조하셨는데 조계종이 너무 조계만 내세우고 있다”며 “불법 아래는 조계니 밑교니 없으니 대응적으로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가불교운동의 방향’ 주제로 불교평론 열린논단서 신심 강조 승속 상호 존경... 세상을 바꾸자

목 교수는 “재가불자들에게는 ‘이제 머리를 깎은 사람이나 안 깎은 사람이 다 구분을 없애고 스스로 불교의 중심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자신을 믿고 불교의 중심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가자들이 더 하심하고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함께 세상을 바꾸기 위해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속은 서로 존경하고 일상생활에서 조그만 것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챙겨 불자들이 사회의 등불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법사회를 이끌며 법사들에게 널리 구별없이 대했다는 목정배 교수는 세상에 진리를 펼치는데는 남녀, 승속 구분



암투병 중에도 강단에 서서 수행과 학문에 매진할 것을 강조한 목정배 동국대 명예교수

이 없다고 강조했다.

목 교수는 “어떤 이들은 스님들이 재가자들과 어울리는 것을 꺼려한다고 하는데 재가자 스스로 왜 스님들이 그럴까 돌아보고 그 요인을 없애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장경사 종종 제자리로 돌아온다

봉은사, 종종 반환 결정... 장경사 “새종 답례”

일본 사찰의 도난 장물인 부석사 금동보살좌상으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가 법당 종종을 원래 자리로 돌려주기로 해 귀감이 되고 있다.

봉은사는 2월 15일 열린 종무회의에서 장경사명(長慶寺名)이 새겨진 강희21년명(銘) 종종을 본래 자리인 남한산성 장경사(주지 경우)에 돌려주기로 결의했다.

이는 소중한 성보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장경사 사부대중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앞서 봉은사는 조계종 종무원에 성보 반환과 관련해 질의했고 ‘문화재 지정이 되지 않아 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봉은사가 반환키로 한 강희21년명 종종은 1682년(조선 숙종 8년) 높이 82.5cm 무게 180kg의 법당용 동종이다. 전통형 범종 양식으로 용뉴는 네발로 천판을 덮고 있으며 죽절형 음통이 있다.

상대 네 방향에 유곽이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구름 형태의 쌍구당초문, 범어로 새겨진 원관법자문 있고, 보살입상이 4방향에 새겨져 있다. 당좌 대신 ‘강희21년 임술3월 경기광주부읍 내 남한산성 장경사 종종중삼백근입’의 명문이 있다.

종종이 일부 손상돼 굵은 철사로 감아 걸 수 있도록 했고, 종단에 총탄의 흔적으로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다.

장경사 이름이 새겨진 종은 봉은사에 있는 연유는 뚜렷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



다. 구한말 의병운동의 본거지였던 남한산성을 점령한 일본군과 관군이 산성내 사찰을 폐쇄하면서 여기에 있던 성보와 경전, 각종 자료를 봉은사로 옮겼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때 봉은사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성보 반환 소식에 장경사는 같은 크기의 종종을 조성해 봉은사에 답례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환영 이운법회를 병행할 계획이다.

장경사 주지 경우 스님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봉은사 사부대중에게 감사 드린다”며 “장경사는 일제 시대 이후 한 동안 폐쇄돼 아무런 기록과 성보가 남아 있지 않다. 이번 종종 반환은 장경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조직 내 종교활동이 업무 만족도 높인다”

월도 스님, ‘경찰 종교활동의 직무만족’ 동국대 박사논문 눈길

단체 내 조직적인 종교활동이 소속 직원들의 업무 및 보수, 승진 등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태종 총무부장 월도 스님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논문으로 ‘경찰공무원의 종교 활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불교학이 아닌 경찰행정학을 통해 행정 분야에 종교영향을 연구한 스님은 2012년부터 전국 경찰 공무원 4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번 연구물을 산출해냈다.

스님은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경찰 조직을 대상으로 종교활동을 주관적, 객관적, 조직적 활동으로 분류해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분석했다. 분류 중 주관적 종교활동은 정서적 위안을 받는 개인적 체험활동, 객관적 종교활동은 기도·종교방송 청취·종교서적 독서 등, 조직적 종교활동은 법회나 봉사활동 등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종교를 가진 이들은 비종교

인보다 업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도 등 객관적 종교활동은 업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주관적, 개인적인 종교활동에 비해 조직 내에서 합동으로 진행되는 종교활동이 업무와 보수와 승진에 대한 만족수준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조사대상자들이 주관적으로 종교활동이 업무만족을 높인다는 응답을 했음에도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객관적인 종교활동은 시간, 공간적 요소의 필요로 업무에 부담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반면 조직 내에서 함께 진행되는 종교활동은 투여되는 시간에 비해 조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업무, 보수, 승진 등에 대한 만족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는 절제와 만족, 이해 등 종교에서 강조하는 가르침이 조직 내 종교를 통한 단체 활동을 통해 더욱 발휘되며 불만과 불평 등 조직원들의 마음을 어루



만지기 때문”이라며 “조직 차원의 구성원의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스님은 “철저한 계급체제가 이뤄진 경찰은 그 업무적 스트레스에도 종교활동에 대한 지원이 미비했다”며 업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직원 가정의 종교 활동 보장 △경찰조직 종교 활동의 장 개선 △온라인 종교 활동 개발 △봉사활동을 통한 종교 활동 △공익활동을 통한 종교 활동 등을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대장경연구소 <장경도감> 통권53호 발간

고려대장경연구소 <장경도감(藏經都監)> 53호가 발간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최근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장경도감> 2월호(통권53호)를 펴냈다.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는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번 소식지에 그동안의 발자취를 정리한 글을 게재했다. 20년의 발자취를 △불교전산화 사업 △출판사업 △대장경학의 기본토대 마련 △국재교류 등으로 나누어 자세하게 기술했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학술네트워크로서의 대장경학회(가칭) 창립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대장경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과 연구자가 만나고 서로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며 성원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소식지에는 고려대장경 지식베이스의 활용 방안과 연구소 소식을 실었다.

고려대장경연구소장 종림 스님은 “대장경을 토대로 세상에 희망을, 고려대장경연구소 부처님의 법을 펴는 새로운 공간으로 태어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선리연구원, 제7회 학술상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2013년 제7회 학술상을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불교학(선학·교학) △불교사·응용불교·불교문학·불교음악·불교미술·불교사회복지 △한국현대불교와 선학원의 세가지 분야로 지원 자격은 불교학 분야 박사과정 수료이상이어야 한다.

공모 접수는 3월 4일까지로 우수상 1명

과 학술상 3명에게는 각각 500만원과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인 <선문화연구>에 실리게 된다. 제출기한은 2월 18부터 3월 4일까지다.

한편, 선리연구원학술상은 불교인재 양성과 불교학 발전을 위해 제정됐으며 선학원 1차할 1논문 지원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02)734-9653

노덕현 기자

인도철학회 춘계학술대회 신청

2월28일까지, 자유주제도 가능

인도철학회(회장 이지수)는 4월 12일 오전 10시 ‘고(古)와 해(海)’를 주제로 서울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도철학회는 춘계학술대회 발표에 참가할 학자 신청을 받는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30매로 신청마감은

2월 28일까지다. 원고 마감은 3월 29일까지.

한편, 1988년 창립된 인도철학회는 4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수 30명, 석·박사 과정 전공자 60명에 이른다. 매년 두차례 학술발표회를 개최하고 성과물을 모은 <인도철학>을 지금까지 22권 발간했다.

노덕현 기자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성,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재불이운),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제 지장청, 시왕도청,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디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 강 주 : 석범은 스님, 월봉 스님
- 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영남총무원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좋은 소리는 스피커와 마이크에 의해 결정됩니다.

소장 : 김문화(海月) 직설설치
音響研究家 無線設備技師

·高音質 무선마이크

파워드릭스 앰프 스테레오 앰프

전국 법당의 앰프 신규설치 및 교체 전문, 사용중인 앰프, 스피커의 소리보완 클리닉!!

신제품!! 고급 앰프케이스 출시
·가격 : 250,000원 (배송료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일반마이크 aV-620

·무선 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마이크

·고성능 탁상마이크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